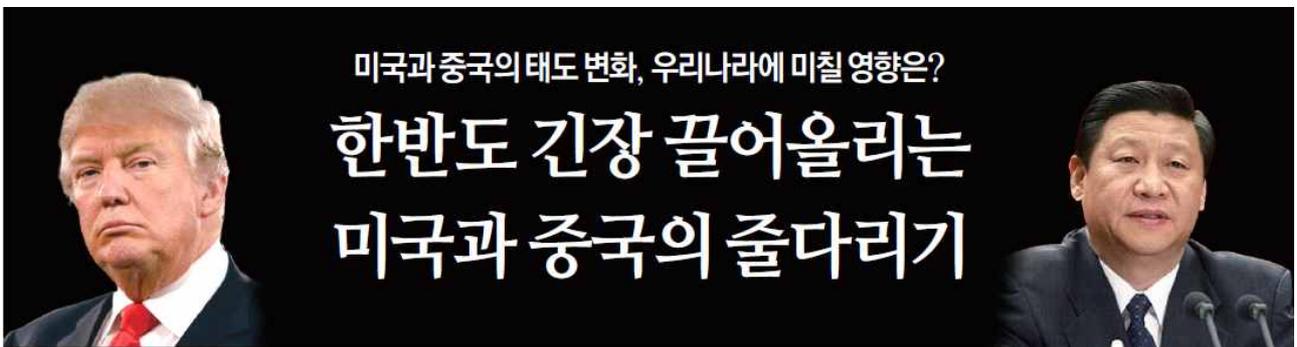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서적,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동아일보DB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핵실험,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 및 세계를 향한 북한의 위협에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다. 지난 달 미국이 최신 전투기를 실은 항공모함과 핵 추진 공격 잠수함 등의 첨단 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대거 배치하며 긴장감을 조성하자, 북한에 대해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던 중국도 북한에게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하기 시작한 것. 이에 따라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보이는 대북 압박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미국은 과거와 달리 강경한 태도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인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뒤 곧이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보였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입장 변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국제적인 수준의 대북 제재가 진행될 때도 중국은 줄곧 대북제재 흐름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강경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에 따라 중국도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한다.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 이유와 계기는 무엇일까? 미국과 중국의 태도는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정상회담으로도 좁히지 못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 변화된 계기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돼 통일되면 곧바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국경을 접할 수도 있는 상황을 걱정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북한을 옹호하는 것.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고 사드배치를 결정한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태도는 지난달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변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개최 당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난다는 상징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반도 문제를 놓고 참여한 입장차를 보이는 양국 정상이 만나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 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아 일각에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공통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에 고수하던 각국의 입장차를 회담을 통해서도 좁히지 못했다는 것.

이런 입장차는 미국의 강경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이 한반도 부근으로 전략 항공모함 등을 급파하면서 군사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였고, 이에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 전문가들, “중국의 대북 압박,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인들은 미국의 갑작스런 강경책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거듭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 상황. 특히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하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자는데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것.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전망한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 경쟁에 주도권을 잡으려 할수록 중국 입장에선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 중국의 한 전문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만한 조치로 나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금융제재분석회사에 따르면 중국 기업 600여 개가 북한 외화의 40%를 벌어들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들 중국 기업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

을 고려 중인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중국이 입을 피해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미국을 돕기로 결심한다면 미국과의 무역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리고 북한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

북한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지금처럼 계속될 경우 정치·군사적으로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국의 거센 압박은 유례가 없어 북한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 한 대북 전문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압박하더라도 북한이 순순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런 압박 속에서도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을 현실화할 경우 한반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북한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일시적인 조치로 그칠 경우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어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 예술인들의 중국 공연을 취소하고,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관광을 금지하는 등 문화 콘텐츠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보복조치를 가하고 있는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이 장기화될 경우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이 0.2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 생각해볼 문제

1. 과거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냉전체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 등 국제 사회의 흐름에 대해 조사해 보자.
2.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각각 정리해 보자.
3. 동북아시아의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② XII. 국제 경제와 세계화

사회② XIII.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 참고자료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춘근 저

KBS 스페셜, 2017년 2월 14일자, 북핵 위기, 기로에 선 한반도

KBS 공감토론, 2017년 4월 12일자, 긴장의 한반도, 지금 정세는?

연합뉴스TV 뉴스 1번지, 4월 12일자, '한반도 위기설'에 안보 이슈 급부상

## 지도법

학생들이 국제 사회 구조를 단 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최근 시사 이슈를 들면서 실제로 국제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 사회의 특징을 짚어주어야 하겠지요.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자국의 실리를 최우선적으로 하지만 평화와 공존을 위한 협력도 하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어떻게 취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협력하는지를 핵심적으로 짚어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제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려주어야겠지요.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도 학생들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국제 문제 외에도 다양한 국제 문제를 다뤄보며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현진 경기 심원중 국어 선생님